간호과학논집 제19권 1호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9 No. 1, December, 2014, pp.47~62

#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모형구축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강 희 순* · 김 수 진**

# Model Construction of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Kang, Hee Sun* · Kim, Soo Ji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structural model for predicting the date sexual violence victim experienc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were 416 people who reported the date sexual violence victim experience in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7 cities of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5.0 program and AMOS 17.0 program.

**Result:** 1. The result of the modified model's fitness test showed $\chi^2$ =141.05($p$<.001), $\chi^2$ /df=2.23, NFI= .90, NNFI= .91, CFI= .94, GFI= .95, AGFI= .92, RMSEA= .05, meaning an improved simplicity and general fitness index of the model.

**Conclusion:** This model predicted the dating sexual violence victims with its simplicity and generality. Thus, based on this model,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date sexual violence could be possible, which could lead to make the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and self-esteem higher, and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lower.

**Key word**: Students, Sexual violence, Structural model

교신저자 : **김수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501-746), 전화: 062-530-4951, 팩스: 062-227-4009, E-mail: pinehillkim@naver.com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년 후기의 발단단계에 속하는 대학생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데이트를 통해 성적 접촉을 경험하고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조절하며 친밀감 획득이라는 발달 과업을 성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주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Choi, 2005). 그러나 잘못된 이성교제는 학업성취의 저하, 이성에 대한 불신, 자아존중감 손상, 성적 충동과 욕구의 조절문제,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며(Kim & Kim, 2001), 혼전동거와 임신중절 및 데이트 성폭력 등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의 억압과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변혜정, 2001), 주로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Diann & Dianne, 2002; Rohini& Christine, 2006).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데이트 상황에서 각자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성적 갈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낙,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Ahn, 2006; Yoo & Park, 2004)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Jang과 Cho(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폭력 중 전체의 17.7%가 성적 폭력이었고,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20～30%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Suh & Lee, 2002)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피해자의 97% 이상이 여성이며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여성건강의 주요문제가 되고 있다(Lee et al., 2010).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 관계나 성 접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을 사랑의 행위나 개인적인 성문제로 생각하고 사회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Jang, 2002). 또한 대부분의 데이트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성폭력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부부나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경우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하였다(Lee, 2007). 성폭력은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나 고착화된 관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Sung, 2010).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커플의 경우 데이트 중의 갈등표출이나 해결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결혼 후 갈등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옥수, 2005). 이와 같이 데이트 성폭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혼 후 부부간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의 사회학습으로 세대전달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박옥임 외 2004).

생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1979)에서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보완성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고, 성폭력이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환경적 요소들이 내재화

된 결과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Nam, 2003). 또한 여성주의 이론은 여성문제를 성차별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을 성폭력의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성폭력 문제해결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im, 2000).

데이트 성폭력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들에서 강간통념수용도, 자아존중감, 데이트 상대 통제 경향, 성적 자기주장성, 사회적 지지도, 성차별적 태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데이트 상대 유무, 성평등 의식, 성폭력 허용도 등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Anh, 2002; Jang, 2002; Jang & Cho, 2001; Lee & Kang, 2010; Lee & Lee, 2005; Maura & Laura, 1998, Nam, 2003),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트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의 하나인 성폭력으로 인식하여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생태학적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포괄적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데이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관련요인들과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셋째, 수정모형의 추정치 및 효과분석을 하고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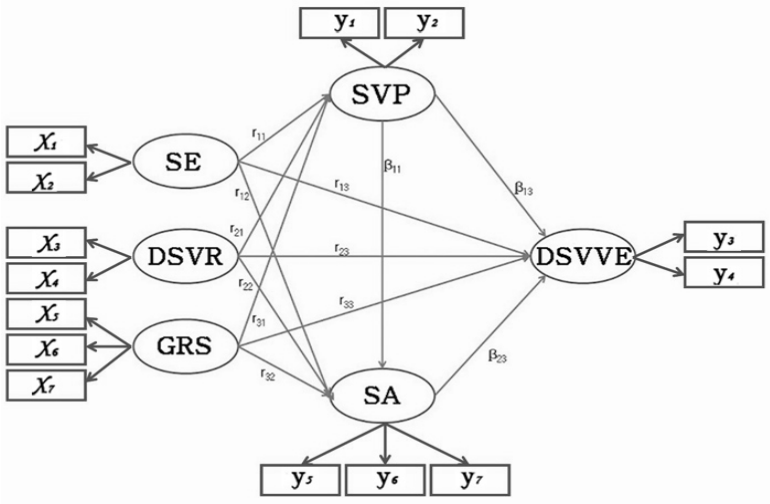
###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적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 및 문헌고찰을 토대로 관련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된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며,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및 성적 자기주장성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근거로 한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3개와 내생변수 3개로 구성되었으며, 외생변수로는 자아존중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생변수로는 성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성,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포함시켰으며,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내생변수인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 외생변수인 자아존중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각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Fig. 1).

## Ⅱ.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를 검정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SVP= Sexual Vilence Permissiveness
DSVVE= Data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SA= Sexual Assertiveness
GRS= Gender Role Stereotype
DSVR= Data Sexual Violence Recognition
SE= Self- Esteem

〈Fig. 1〉 Hypothetical model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 수집 방법은 지역적인 편중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의 11개 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각 대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임연구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준 후 조사를 의뢰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교양 교과목 담당 교수의 동의를 얻어 수강학생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성간의 데이트경험이 있는 학생의 설문지를 별도 관리하였다. 공변량 구조 분석시의 표본의 크기는 모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200명 이상 이어야만 부합지수들이 모형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모형의 검증력이 떨어질 수 있다(Lee, 1990). 따라서 이성간의 데이트경험이 있는 1,135명중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설문지 총 416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10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15문항, 성폭력 허용도 10문항, 성적 자기주장성 11문항,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11문항,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Rosenberg (197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참고로 Song(2006)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Song (2006)의 연구에서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나 가해 당시에 그 행위가 데이트성폭력 인지를 분명히 아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며, Sugarman(1996)이 개발하고 Nam(2003)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경미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심각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Nam(2003)의 연구에서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Kim(1999)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척도를 Koh(2006)가 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Koh(2006)의 연구에서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4)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의 성폭력 행위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Korean Institude of Criminology(2000)에서 개발한 척도를 Park(200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된 총 10문항의 5점 척도 도구로,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Park(2007)의 연구에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5) 성적 자기주장성

타인의 성 욕구나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인 성적자기주장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Patricia 등(1997)이 개발한 성적자기주장척도를 Choi(2005)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원치 않은 성적 자기주장성, 예방적 성적 자기주장성, 원하는 성적 자기주장성으로 구성된 총 11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Choi(2005)의 연구에서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6)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이성 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 중에 피해자의 성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성폭력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Jang(2002)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 심리적·언어적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구성된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Jang(2002)의 연구에서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hi^2$(Chi-Square), $\chi^2$/df, NFI(표준적합지수), NNFI(비표준적합지수), CFI(비교적합지수), GFI(기초적합지수), AGFI(조정적합지수), RMSEA(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경로별 추정계수의 유의성 평가는 다중상관자승치(SMC), 표준화 계수(SE), $p$값을 근거로 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 미만이 75.7%, 10～19세 미만이 23.6%, 30세 이상이 0.7% 순으로 20～29세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53.4%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54.6%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이상이 32.5%, 읍면 이하가 13.0%이었다. 거주형태로는 가족과의 동거가 58.4%로 가장 많았고, 하숙·자취 20.9%, 기숙사 20.0%, 파트너와 동거 0.7%의 순으로서 대부분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에서 4학년 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단과대학별 소속은 인문계열이 23.1%로 가장 많았고, 간호보건계열 21.6%, 사회과학계열 13.7%의 순이었다.

###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 첨도 값을 분석한 결과, 절대값이 2에 가깝게 분포되었으나, 구조모형 분석에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Bootstraping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0점 만점에 평균39.13점(±4.70),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50점 만점에 37.25점(±7.03), 성역할 고정관념은 57점 만점에 33.43점(±8.48)이었고, 성폭력 허용도는 48점 만점에 13.76점(±3.96), 성적 자기주장성은 55점 만점에 44.47점(±5.49),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49점 만점에 15.93점(±5.33)으로 나타났다(Table 1).

### 3.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각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성적 자기주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성(r=.283),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r=.108)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성폭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416)

| Variables | Mean | Mean±SD | Range | Skewness | Kurtosis |
|---|---|---|---|---|---|
| Self-esteem | 39.13 | 4.70 | 22～50 | -.30 | .149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 37.25 | 7.03 | 13～50 | -.36 | .091 |
| Gender role stereotypes | 33.43 | 8.48 | 15～57 | .11 | -.36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13.76 | 3.96 | 10～48 | .61 | .75 |
| Sexual assertiveness | 44.47 | 5.49 | 19～55 | -.49 | .69 |
|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 15.93 | 5.33 | 11～49 | 1.49 | 2.72 |

력 허용도(r=-.191), 성역할 고정관념(r=-.172),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r=-.168)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성적 자기주장성(r=.457)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r=-.169)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허용도(r=.275)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적자기주장성(r=-.339),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r=-.24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성폭력 허용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r=.265)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적 자기주장성(r=-.384),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r=-.322)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적 자기주장성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r=-.153)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Major Variables (N=416)

| | X1 | X2 | X3 | Y1 | Y2 | Y3 |
|---|---|---|---|---|---|---|
| X1 | 1 | | | | | |
| X2 | .108* | 1 | | | | |
| X3 | -.172** | -.245** | 1 | | | |
| Y1 | -.191** | -.322** | .275** | 1 | | |
| Y2 | .283** | .457** | -.339** | -.384** | 1 | |
| Y3 | -.168** | -.169** | .094 | .265** | -.153** | 1 |

* p<.05, ** p<.01

X1 : Self-esteem
X2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X3 : Gender role stereotypes
Y1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Y2 : Sexual assertiveness
Y3 :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 4. 가설적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모형의 분석에 앞서 가설적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론변수와 측정변수들 간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의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가설적 모형의 검증 결과 $\chi^2$검증은 180.89($p$=.001)이므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chi^2$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는 $\chi^2$검증 값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chi^2$/df=2.74, NFI=.87, NNFI=.88, CFI=.91, GFI=.94, AGFI=.90, RMSEA=.06로 나타났으나, NFI와 NNFI 는 0.9 미만으로 적합지수가 낮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5. 모형의 수정 및 검증

### 1) 모형의 수정

모형 수정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적합도와 간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판단하여 수정함으로써 자료에 가장 근접한 모형을 찾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모형 수정은 음오차분산(negative variance)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외생변수인 자아존중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역할 고정관념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외생변수들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한 결과, 가설적 모형보다 수정모형은 직접효과 경로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더 간명하면서 적합도 지수가 호전된 것으로 수정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 2)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을 $\chi^2$ 변화량의 차이 검증에 따라 비교해 볼 때, $\chi^2$ 변화량의 차이는 39.84(=180.89-141.05)이고, 자유도 차이는 3(=66-63)으로 $\chi^2$변화량의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값보다 큰 것으로(39.84>3) 나타났다. 또한 NFI는 가설적 모형에서는 .87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90이었고, NNFI는 가설적 모형에서 .88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91이었다. CFI는 가설적 모형에서는 .91이었으며, 수정모형에서는 .94이었다. AGFI는 가설적 모형에서 .90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92으로 나타났으며, RMSEA은 가설적 모형에

〈Table 3〉 Fitness Index for the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N=416)

| Indices | $\chi^2$ ($p$) | df | $\chi^2$/df | NFI | NNFI | CFI | GFI | AGFI | RMSEA |
|---|---|---|---|---|---|---|---|---|---|
| acceptable value | (>.05) | | <3 | ≥.90 | ≥.90 | ≥.90 | ≥.90 | ≥.90 | ≦.05 |
| Hypothetical model | 180.89 (.001) | 66 | 2.74 | .87 | .88 | .91 | .94 | .90 | .06 |
| Modified model | 141.05 (.001) | 63 | 2.23 | .90 | .91 | .94 | .95 | .92 | .05 |

서는 .06였으나 수정모형에서는 .05로 나타나 가설적 모형보다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훨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3) 수정모형의 모수추정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는 성폭력 허용도는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β=-.29, t=-4.51, $p$<.001)와 자아존중감(β=-.18, t=-3.34, $p$<.001)이 낮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β=.27, t=3.74, $p$<.001)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성폭력 허용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28.6%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로는 자아존중감(β=164, t=3.27, $p$<.01),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β=.43, t=6.60, $p$<.001)가 낮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β=-.21, t=-3.11, $p$<.01), 성폭력 허용도(β=-.25, t=-3.42, $p$<.001)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성적 자기주장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58.6%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성폭력 허용도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Table 4〉 Parameter Estimate for the Modified Model an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 Endogenous variable / Exogenous variable | Modified model | |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 SE | t | SMC | | |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 | .28 | | | |
| Self-esteem($\gamma_{11}$) | .030 | -3.34*** | | -.18*** | - | -.18***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gamma_{21}$) | .033 | -4.51*** | | -.29*** | - | -.29*** |
| Gender role stereotypes($\gamma_{31}$) | .040 | 3.74*** | | .27*** | - | .27*** |
| **Sexual assertiveness** | | | .58 | | | |
| Self-esteem($\gamma_{12}$) | .038 | 3.27** | | .16** | .04 | .21***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gamma_{22}$) | .047 | 6.60*** | | .43*** | .07 | .51*** |
| Gender role stereotypes($\gamma_{32}$) | .053 | -3.11** | | -.21** | -.07 | -.28***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beta_{11}$) | .106 | -3.42*** | | -.25*** | - | -.25*** |
|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 | | .28 | | | |
| Self-esteem($\gamma_{13}$) | .051 | -2.27* | | -.18* | -.06 | -.25**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gamma_{23}$) | .071 | -.77 | | -.09 | -.09 | -.29** |
| Gender role stereotypes($\gamma_{33}$) | .068 | -.261 | | -.02 | .10 | .07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beta_{13}$) | .157 | 3.49*** | | .47*** | -.02 | .45*** |
| Sexual assertiveness($\beta_{23}$) | .137 | .48 | | .08 | - | .08 |

* $p$<. 05, ** $p$<. 01, *** $p$<. 001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E = Standard Error

(β=-.18, t=-2.27, $p$<.05)이 낮을수록, 성폭력 허용도(β=.47, t=3.49, $p$<.001)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정도는 28.9%로 나타났다(Table 5). 또한 모형수정을 위한 외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성폭력 인식도는 정적 상관관계(r=.16, t= 2.98, $p$<.01)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고정관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19, t= -3.1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 인식도와 성역할 고정관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31, t= -4.4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본 연구의 수정모형에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와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모두 성폭력 허용도에 직접효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가 유

〈Table 5〉 Parameter Estimate for the Modified Model

| Endogenous variable / Exogenous variable | Standardized coefficient($\beta$) | SE | t | p | SMC |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 | | | |
| Self-esteem($\gamma_{11}$) | -.182 | .030 | -3.342 | *** | .286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gamma_{21}$) | -.296 | .033 | -4.513 | *** | |
| Gender role stereotypes($\gamma_{31}$) | .275 | .040 | 3.743 | *** | |
| **Sexual assertiveness** | | | | | |
| Self-esteem($\gamma_{12}$) | .164 | .038 | 3.279 | ** | .586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gamma_{22}$) | .434 | .047 | 6.606 | *** | |
| Gender role stereotypes($\gamma_{32}$) | -.215 | .053 | -3.114 | ** |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beta_{11}$) | -.259 | .106 | -3.426 | *** | |
|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 | | | | |
| Self-esteem($\gamma_{13}$) | -.184 | .051 | -2.275 | * | .289 |
|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gamma_{23}$) | -.093 | .071 | -.779 | | |
| Gender role stereotypes($\gamma_{33}$) | -.028 | .068 | -.261 | | |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beta_{13}$) | .471 | .157 | 3.493 | *** | |
| Sexual assertiveness($\beta_{23}$) | .080 | .137 | .48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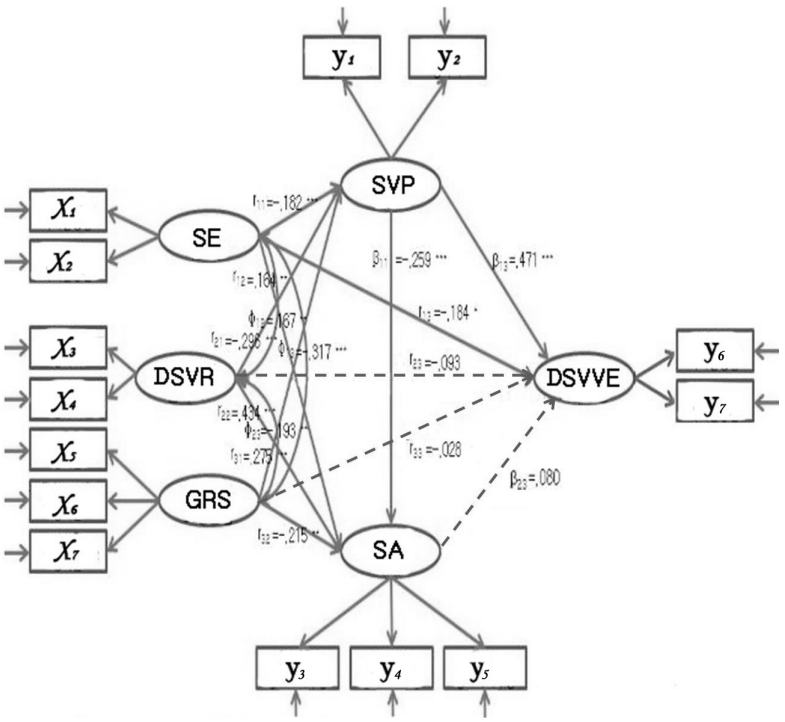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설적 모형에서와 같이 수정모형에서도 성폭력 허용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허용도와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총효과(β=-.29)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 수정모형의 경로결과는 Fig. 2와 같다.

## Ⅳ.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SVP= Sexual Vilence Permissiveness
DSVVE= Data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SA= Sexual Assertiveness
GRS= Gender Role Stereotype
DSVR= Data Sexual Violence Recognition
SE= Self- Esteem

〈Fig. 2〉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l

변수는 성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허용도는 성적 자기주장성과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 및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요 변수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폭력 허용도로 확인되었으며, 성폭력 허용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효과,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허용도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Jang과 Cho(2001)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성폭력과 폭력허용적인 태도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은 폭력행동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Jang, 2002; Lee & Kang, 2010; Lee & Lee, 2005; Nam, 2003)들과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전반적으로 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과 연관되어 있어 사회의 폭력 수용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점차 폭력이란 것에 대해 허용적이 되어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허용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데이트 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의 중요한 변인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데이트 상대가 있는 경우 성폭력 허용도는 높고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낮았다(Nam, 2003). 이는 Jang(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데이트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해서 애정의 표현이거나 관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이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행동들이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 Lee, 2005), 이러한 결과는 실제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데이트 상대가 있는 경우에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피해를 장기화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데이트폭력의 피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Lee와 Kang (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성폭력 피해경험 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높여 줌으로써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낮춰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성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Son, 2004)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생긴 성폭력에 대한 후유증은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전통적인 성 각본은 결국 여성들을 성적 피해자가 되도록 취약하게 만든다(Byers, 1996).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뿐 아니라 실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성적 자기주장성은 자아존중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Lee(2005)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성을 약화시켜 데이트 상황에서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나, 성적 자기주장성과 자아존중감과의 밀접한 관련을 보인 선행연구들(Song, 2006; Jang, Lee, & Kim, 2003; Choi, 2005)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대생의 성 접촉 경험의 정도가 성적 자기주장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 능력이 이성교제 간의 성 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로 해석이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성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므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성적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성폭력 허용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폭력 인식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모형은 데이트 성폭력 예방관리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 정립과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론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킴으로써 모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사후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성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남학생 대상의 연구와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실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데이트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을 기초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신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Ⅴ.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신간호 중재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산출된 각 경로의 유의성과 이론적 의미를 고려한 가설적 모형의 수정작업이 필요하였으며,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 변수를 유지하면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 및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 허용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데이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신간호 실무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론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모형개발과 본 연구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킴으로써 모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사후검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Ahn, G. Y. R.(2002). Personal risk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9*. 55-75.

Bronfenbrenner, M.(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 A : Harvard University Press.

Byers, E. S.(1996). How well does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explain sexual coercion? review of a program of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Vol.8*(1-2). 7-26.

Choi, M. H.(2005).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Jang, H. S., & Cho, H. G.(2001.)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97-204.

Jang, S. B., Lee, S. K., & Kim, Y. R.(2003). Effects of a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in high school girls,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33(*5), 659-667.

Jang, Y. K.(2002). *A study on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im, D. I.(1999). Gender stereotypes of Korean. *Sociology of gender*, Seoul : Muneumsa

Kim, J. H.(2000). A study on the roles of school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3th.

Kim, Y. M., & Kim, H. O.(2001).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in dating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185-199.

Koh, H. R.(2006). (An)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n Institude of Criminology(2000). *A study on the Korean sexuality and sexual violence.* Seoul : Korean Institude of Criminology.

Lee, Y. S., & Kang, H. S.(2010).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victims while dating a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6*(3), 266-275.

Lee, J. Y., & Lee, E. S.(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2), 419-436.

Lee, J. H., Kim, K. H., Choi, M. H., Kim, H. Y., Oh, K. S., & Kim, K. S.(2010). A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nd cyber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76-84.

Lee, J. Y., & Lee, E. S.(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2), 419-436.

Lee, S. M.(1990).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oul : Seong-wonsa.

Maura, L., & Laura. B.(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4*(2).

Nam, H. M. (2003).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O'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Park, M. R.(2007). *Relationships among gender role attitudes, sexual attitudes, impulsivity,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G., Pamela, R. G., & Gary, J. B.(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y, 73*(4), 790-804.

Rosenberg, M.(197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Univ. Press.

Son, S. A.(2004). The psychological health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of a college fem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59*(2), 87-103.

Song, H. S.(2006).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Sugarman, D, B.(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4). 313-328.

Suh, K. H., & Lee, K. S.(2002). Anger, psychoticism, and addiction in dating violence inflictors and recipi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3), 353-368.

Sung, M. H.(2010). Sex role identities and attitudes on the sexual viol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4), 374-381.